

# 근대신문 단형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 국한문 · 한문 단형서사를 중심으로 -

반재유\*\*

## 〈차 례〉

- 서론
- 국한문 · 한문 단형서사의 연구동향
- 국한문 · 한문 단형서사 연구의 과제
- 나오며

## [국문초록]

근대 전환기 무렵, 근대 매체에 출현한 단형서사의 존재는 근대시기를 소설사적 공백기나 단절기로 보아 온 것에 대한 반론의 증거이며, 신소설과 근대소설이 출현하기 이전부터 시대와 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성장한 근대 서사문학의 존재를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이다.

기존 국문 단형서사의 연구들이 1910년대에 등장한 소설양식에 미친 영향에 대해 주목했다면, 국한문 · 한문 단형서사의 연구는 당대 서사문학의 지적기반과 전개양상을 조망하기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대상이다. 국한문 · 한문 단형서사 자료에 대한 주목은 근대의 새로운 글쓰기에 영향을 주었던 매체와 인물, 전통 서사양식 등 다양한 시각에서 근대 서사문학을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고에서 정리한 국한문 · 한문 단형서사의 연구동향과 과제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인 자료들에 대한 분석에 앞서 사전 작업의 성격을 가진다. 이는 기존 단형서사 자료들에 대한 연구의 성과와 공백들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도출하기 위함이다.

본고를 시작으로 정리해 나갈 전체 자료에 대한 매체별 · 시기별 · 게재란별 목록화 작업은 기존 단형서사 연구의 목표였던 근대시기 서사문학 양식의 흐름 및 계승의 과정을 조망하고, 국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4S1A5B5A16027878)

\*\*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 학술연구교수

문 단형서사와 함께 병존했던 근대 서사문학의 존재 양태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단형서사, 근대신문, 서사문학, 문체, 국한문, 연구동향

## 1. 서론

근대 전환기 무렵, 근대적 매체인 신문과 잡지에는 국문과 국한문, 한문 단형서사들이 출현했으며, 해당 단형서사들은 일정기간 폭넓은 독자층을 형성하며 다양한 지면을 통해 발표되었다. '단형서사의 존재는 근대시기를 소설 사적 공백기나 단절기로 보아 온 것에 대한 구체적 반론의 증거이자, 신소설과 근대소설이 출현하기 이전부터 시대와 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성장한 근대 서사문학의 존재를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sup>1)</sup>로서 의미를 지닌다. 이 같은 문학사적 의미만큼 단형서사에 대한 연구는 근대초기 신문을 기반으로 많은 성과가 축적되었지만, 대부분 국문 자료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sup>2)</sup> 상대적으로 국한문·한문 자료에 대한 학계의 주목은 매우 적었다.<sup>3)</sup>

근대 단형서사 자료는 본래 정해진 형태가 아닌, 시기와 환경(매체), 문화 등에 따라 변모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특히 국한문·한문 단형서사는 전통적 글쓰기에 익숙한 근대 지식인들이 식자층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신문지면을 통해 그들의 사유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이다. 국한문·

1) 김영민, 「근대계몽기 단형 서사문학자료연구」, 『현대소설연구』 17, 한국현대소설학회, 2002, 112-113쪽.

2) 김영민, 『한국근대소설사』, 솔, 1997; 한기형, 『한국 근대소설사의 시각』, 소명 1999; 김윤규, 『개화기 단형 서사문학의 이해』, 국학자료원, 2000; 김영민, 『한국의 근대신문과 근대소설1 - 대한매일신보』, 소명, 2006; 김영민, 『한국의 근대신문과 근대소설2 - 한성신보』, 소명, 2008; 김영민, 『한국의 근대신문과 근대소설3 - 만세보』, 소명, 2014;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근대계몽기 단형서사문학 연구』, 소명, 2005;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한국 근대 서사양식의 발생 및 전개와 매체의 역할』, 소명, 2005; 문한별, 『한국근대소설양식론』, 태학사, 2010 등.

3) 국한문 작품의 경우 소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일부 연구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한문 자료의 경우는 거의 연구된 바 없다. 이는 각 작품에 대한 해독의 어려움과 더불어 표기수단과 문체, 주제의식 등의 유기적이지 못한 혼란함이 실증적 자료검토를 어렵게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관련 연구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고 2장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한문 단형서사 자료에 대한 주목은 근대의 새로운 글쓰기에 영향을 주었던 매체와 인물, 전통 서사양식 등 다양한 시각에서 근대 서사문학을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 국문 단형서사의 연구들이 1910년대에 등장한 소설양식에 미친 영향에 대해 주목했다면, 국한문 및 한문 단형서사의 연구는 당대 서사문학의 지적기반과 전개양상을 조망하기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대상이다.

본고는 해당 자료들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근대시기 전체 국한문 · 한문 자료에 대한 연구 동향 및 자료의 현황과 쟁점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한문 · 한문 단형서사에 대한 전체 자료들(약 3,100편)<sup>4)</sup>은 대한민국신문 아카이브<sup>5)</sup> 및 영인 · 사진 자료<sup>6)</sup>(한성순보 · 한성주보, 한성신보, 시사총보,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만세보, 대한민보, 경남일보) 등을 통해 수집한 기사들이다. 해당 자료들은 기존 연구들에서 다룬 단형서사(서사적논설)의 제한적 범주에서 확대된 것으로, 소화(笑話) · 시평(時評) · 소품체(小品體) 등의 자료까지 아우르고 있다. 다양한 단형서사 자료의 존재 및 근대 서사양식의 전거를 확인하는 과정은, 한국의 근대문학이 단순히 서구나 일본 정론지의 영향만이 아닌 전통적 산문양식을 토대로 변화된 시대를 반영하며 변화하고 성장한 양식임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고를 통해 단형서사 연구의 새로운 방향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4) 본고의 근대시기 국한문 · 한문 단형서사 작품은 잡지를 제외한 신문자료만을 대상으로 삼았음을 밝힌다. 잡지에 비해 비교적 매체의 성격이나 특징, 규모, 위상 등을 구체화하기 용이한 신문자료에 대한 사전 논의는, 추후 방대한 잡지 자료들을 아우르는 데 있어 필수적 부분이라 생각한다. 오랜 시일이 걸리겠지만, 본 연구의 집적된 결과를 토대로 잡지 자료에 대한 연구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5) 본 연구에서 다루는 근대 신문 가운데 대한민국신문 아카이브(<https://nl.go.kr/newspaper/>)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신문은 6종(한성순보, 한성주보,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만세보, 경남일보)으로 확인된다.

6) 『漢城旬報·漢城週報』(影印本), 寬勳클럽 信永研究基金, 1983; 『漢城新報』(影印本), 연세대학교출판부, 2014; 『時事叢報』(影印本), 영남대 출판부, 1973. (제1호-제98호); 고려대 소장본(제99호; 제100호); 한국문화간행회 편, 『皇城新聞』(影印本), 경인문화사, 1994; 한국신문연구소 편, 『大韓每日申報』(影印本), 사단법인 한국신문연구소, 1976-1977; 한국학문헌연구소編, 『萬歲報』(影印本), 亞細亞文化史, 1985; 『大韓民報』(影印本), 大韓民報社, 亞細亞文化社, 1985;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慶南日報』(影印本), 영남대학교출판부, 1996.

## 2. 국한문·한문 단형 서사문학의 연구동향

### 1) 2000년 이전 : 단형서사의 발굴 및 장르체계의 정리

한국 근대신문에 대한 초창기 연구는 언론학계를 중심으로 『한국신문사』(최준, 일조각, 1960), 『한국신문사연구』(이해창, 성문각, 1971), 『한국 언론사연구』(정진석, 일조각, 1983)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진행되었다. 비슷한 시기 국문학계의 단형서사 연구 또한 단일매체보다는 동시대 신문 of 서사문학 작품들과 함께 논의되는 특징을 가지는데, 이재선<sup>7)</sup>과 송민호<sup>8)</sup>의 선구적 성과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으며 대부분 「논설」에 게재된 단형의 국문체 서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근대 초기 단형의 서사양식들을 근대문학의 연구범위 안에 편입시킬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의의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단형서사 작품을 제시하거나 작품분석을 통한 양식적 특징을 거론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진다.

1980년 전후에 발표된 김중하<sup>9)</sup>와 박일용<sup>10)</sup>의 연구는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서사자료를 본격적으로 주목한 글이었다. 먼저, 김중하는 「개화기 토론회소설 연구」에서 『황성신문』<sup>11)</sup>과 『대한매일신보』<sup>12)</sup>의 「논설」·「기서」·「잡보」 기사들을 소개하며, 양식의 유사성과 의도적 풍자성, 해설적 역할 등을 근거로 토론회 소설양식 발생에 연맥 되어 있다고 주

7) 이재선은 한국단편소설사의 전사적 배경과 장르체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단형서사문학(Kurzepik)'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전개적형태(史傳·傳奇)'와 '단순형태(逸話·民譚·傳說·神話·戲謔·寓話·噺話)'로 도식적 분류를 시도했다. (이재선, 「개화기 서사문학의 두 유형」, 『국어국문학』 68·69, 국어국문학회, 1975; 이재선, 『한국단편소설 연구』, 일조각, 1975.)

8) 송민호는 『大韓每日申報』의 <쇼경과 안증방이 문답>(1905.11.17.~12.13.), <車夫誤解>(1906.2.20.~3.7.) 등 개별적 작품에 대한 논의는 진행했지만, 별도의 '단형서사의 범주에서 다룬 것이 아닌, '한말 정치류 소설'로 한정하고 있다. (송민호, 『한국개화기 소설의 사적연구』, 일지사, 1975, 180~191쪽 참조.)

9) 김중하, 「개화기 토론회소설 연구」, 『관악어문연구』 3,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78.

10) 박일용, 「開化期 敍事文學의 一研究」, 『관악어문연구』 5,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80.

11) 「論說: 三早問答」(1903.6.27.); 「論說: 滿洲問題問答」(1903.10.16.); 최영표(崔永彪), 「寄書: 天下大勢問答」(1903.9.22.).

12) 日本留夢遊生記, 「寄書: 時事問答」(1907.4.24.); 「雜報: 聾者奇夢」(1905.9.5.); 「雜報: 董菴琴說」(1905.9.12.); 「雜報: 卜居續問」(1905.9.24.); 「雜報: 采藥翁-山人說夢」(1905.11.5.).

장하였다. 박일용의 「개화기 서사문학의 일연구」에서는 기존 김중하의 연구를 기반으로 『황성신문』의 「논설」 및 「기서」에 발표된 ‘몽유록’, ‘토론’, ‘우화’의 형식을 갖는 자료들을 추가로 소개하였다. 분석과 예시의 대상이 소수 특정 작품<sup>13)</sup>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개화기 서사문학의 한 단면만을 보여 주었다는 한계를 가지지만, 논문 말미에 『황성신문』의 <작품연보> 등을 첨부하며 후속연구에 초석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후 단형서사에 대한 연구는 국문 작품들을 중심으로 ‘토론체 양식’<sup>14)</sup>과 ‘단형서사체’<sup>15)</sup>, ‘서사적논설’<sup>16)</sup>, ‘단편서사물’<sup>17)</sup> 등으로 지칭되며, 본격적인 연구성과들을 축적하게 된다. 그 과정 속에서 국한문 · 한문 단형서사에 대한 연구도 『황성신문』에 실린 작품들을 중심으로 점차 외연을 넓혀가기 시작했다.

유영은<sup>18)</sup>은 개화기 신문 · 잡지에 수록된 단형서사를 다루면서 『황성신문』에 게재된 우화 14편, 몽유록 13편, 토론체 47편을 다뤘고, 정선태<sup>19)</sup>는 『황성신문』 134편(『독립신문』 · 『매일신문』 · 『제국신문』 포함 228편)의 ‘서사적논설’을 분석하였다. 특히 정선태는 자기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주장하여 서술하는 ‘논(論)’과, 사물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미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설(說)’이 근대신문에 ‘논설’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하여 계몽 담론을 이끄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라 설명하며, 「논설」란 속 서사수용 양상

13) ① 夢遊錄「寄書：蜜亞生」, 『皇城新聞』 1900.10.17.; 「論說：笑山子가 寄送惺惺夢記」, 『皇城新聞』 1899.3.6.; 「論說」, 『皇城新聞』 1899.8.19.; 「論說」, 『皇城新聞』 1899.1.16.; 「論說」, 『皇城新聞』 1898.10.14. ② 討論「論說：漁樵問答」, 『皇城新聞』 1899.9.20.; 「論說：其渠是何物也」, 『皇城新聞』 1903.8.15. ③ 寓話「論說：讀虎叱一嘆」, 『皇城新聞』 1901.6.29.; 「論說：得過且過」, 『皇城新聞』 1899.12.23.; 「論說：得過且過」, 『皇城新聞』 1899.12.23.; 「論說」, 『皇城新聞』 1899.2.8.

14) 김주현, 「개화기 토론체 양식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9; 이강엽, 『토의문학의 전통과 우리소설』, 태학사, 1997.

15) 유영은, 「개화기 단형서사체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9.

16) 김영민은 『한국근대소설사』(술출판사, 1997)에서 근대시기 신문 논설의 서사적 특질을 밝혀내는 시도를 하였는데, 글이 표방하는 형식은 논설이지만 내용은 서사로 이루어진 글을 ‘서사적논설’로 지칭했다. 이 작품들은 조선 후기 야담 및 한문단편과 맥을 같이한다고 보았으며, 더불어 신소설과 역사전기류 소설 등장의 기반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17) 한기형, 앞의 책, 1999; 한기형, 「신소설 형성의 양식적 기반」, 『민족문학사연구』 14, 민족문학사연구소, 1999.

18) 유영은, 앞의 논문.

19) 정선태, 「개화기 신문 논설의 서사 수용 양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9.

이라는 문학사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 같은 연구들은 2000년 이후 국한문 · 한문 단형서사에 대한 다층적 논의들이 출현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 2) 2000년 이후 : 단형서사 양식의 전거 확인

2000년 이후 진행된 국한문 · 한문 단형서사의 논의들은 대체로 서사 양식의 전거를 확인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근대 서사양식의 전거를 검토한 작업으로는 전통적인 한문학의 갈래 양식인 ‘우언(寓言) · 전(傳)’과 ‘논변(論辨) · 기(記)’ 등의 양식에서 이어져 왔다는 입장이다.

먼저 우언(寓言) · 전(傳) 양식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으로는 양승민, 조상우, 김찬기, 윤승준 등<sup>20)</sup>이 있다. 양승민은 애국계몽기(1894~1910)의 작품 가운데 전대 문학사의 전통을 계승한 우언 작품들을 선별하였는데, 그 가운데 『황성신문』 논설 5편, 『대한매일신보』 기서(寄書) 1편(『대한유학생 학보』외 잡지포함 22편)이 포함되었다.<sup>21)</sup> 이들 작품은 문답 · 의론 방식을 활용하거나 민간설화나 가전체 서술기법 등을 수용하면서 양식적 교섭을 시도했다고 평가하였는데, 전대 문학사의 맥락에서 작품을 분석하여 애국계몽기 우언의 존재양상과 역사적 의의를 도출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김찬기의 경우, 『그리스도신문』 · 『황성신문』 · 『대한매일신문』에 발표된 6편의 전(傳) 양식들<sup>22)</sup>(『西友』외 잡지 · 단행본포함 14편)을 사실 지향의 전과 허구 지향의 전으로 유형화시키고 해당 갈래들의 전변양상 및 미적 특질들을

20) 양승민, 「애국계몽기 우언의 존재 양식과 그 역사적 의의」, 『우리문학연구』 13, 우리문화회, 2000; 조상우, 「애국계몽기의 우언에 표출된 계몽의식」, 『동양학』 34,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03; 김찬기,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전』, 소명, 2004; 윤승준, 「근대계몽기 단형 서사문학과 우언」, 『동양학』 38,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05.

21) 「論說」, 『皇城新聞』 1899. 2. 8; 「論說: 寓言」, 『皇城新聞』 1899. 3. 8; 「論說」, 『皇城新聞』, 1899. 3. 10.; 「論說: 暗室欺心神目如電」, 『皇城新聞』 1899. 3. 20; 「論說」, 『皇城新聞』 1899. 3. 22; 「寄書: 狐假人形談」, 『大韓每日申報』, 1906. 11. 2.

22) 「을지문덕」, 『그리스도신문』, 1901. 8. 22.; 「길지」, 『그리스도신문』, 1901. 9. 5.; 「金鳳本傳」 · 「魚福孫傳」, 『황성신문』, 1906. 5. 19. -12. 31; 「夢見滄海力士」, 『황성신문』, 1908. 3. 29.; 「水軍第一偉人李舜臣」, 『대한매일신보』, 1908. 5. 2. -8. 18; 「東國巨傑崔都統」, 『대한매일신보』, 1909. 12. 5. -1910. 5. 27.

규명한 바 있다.

조상우는 연구의 초점이 악습의 개혁, 교육계몽, 제도개혁 등의 계몽의식에 맞춰져 있지만, 『황성신문』의 작품<sup>23)</sup>을 포함한 근대시기 잡지의 몽유우언들이 외형의 형식에 있어 과거 몽유양식을 그대로 이어받았음을 주장하였다. 윤승준 또한, 근대시기 단형 서사를 서사와 논설이 결합된 글쓰기로 서, 서사보다는 논설에 의의를 두었다는 점에서 우언 글쓰기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단형서사의 주요 서사방식인 문답과 토론, 우화, 몽유 등<sup>24)</sup>을 전대 우언과 관련하여 재검토하며 근대시기 우언의 문학사적 위상을 설명하였다.

근대 서사양식의 전거를 검토하는 작업들은 반드시 국한문·한문 단형서사 연구에만 국한되었던 것은 아니다. 앞서 한글 단형서사에 대한 논의들 안에서도 전통적 문학양식과의 영향관계를 밝히는 작업들<sup>25)</sup>은 지속적으로 진행된 바 있는데, 해당 논의들을 토대로 국한문·한문 서사작품들까지 논의의 범주를 확장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로도 전통 산문양식인 논변(論辨)·기(記) 등의 영향관계에 주목한 배수찬, 이병철, 반재유 등<sup>26)</sup>의 연구가 이어졌다. 먼저 배수찬은 『한성순보』 소재 한문체 문장들이 이질적인 다양한 신문란(‘국내관보’, ‘내국기사’, ‘각국근사’, ‘논설’, ‘집록’) 속에 분류되는 과정을 서술하며, 중세적 글쓰기 인식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3) 「論說: 笑山子가寄送惺惺夢記」, 『皇城新聞』, 1899.3.6; 「論說」, 『皇城新聞』, 1899.8.19; 密啞生, 「寄書」, 『皇城新聞』, 1900.10.17; 逍遙子, 「寄書: 夢見滄海力士」, 『皇城新聞』, 1908.3.29; 「論說: 夢拜白頭山靈」, 『皇城新聞』, 1908.9.12; 「論說: 南廓子記夢」, 『皇城新聞』, 1901.3.9; 「論說」, 『皇城新聞』, 1898.10.14; 「論說」, 『皇城新聞』, 1899.1.16; 「論說: 石佛點頭」, 『皇城新聞』, 1900.6.5; 「論說: 夢遊動物園」, 『皇城新聞』, 1901.8.10; 「論說: 醉與夢亦必諫之覺之」, 『皇城新聞』, 1901.11.30.

24) 『皇城新聞』의 작품으로는 ‘문답’-「論說: 衆老人의 聽蛙劇談」(1907.6.15.), ‘우화’-「論說: 有眼者詎學盲魚」(1900.6.16.); 「論說: 倉鼠則鼠之嘲」(1902.11.15.), ‘몽유’-「論說: 夢中問答」(1899.1.16.) 등을 다루었다.

25) 강영주, 『한국근대역사소설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6; 한기형, 앞의 책, 1999; 김영민, 앞의 책, 1999; 문한별, 앞의 책, 2010 등.

26) 배수찬, 「『한성순보』의 글쓰기 인식에 대한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1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이병철, 「근대신문의 논설텍스트와 서사관계」, 『한국사상과 문화』 68, 한국사상문화학회, 2013; 반재유, 「『시사총보』의 논설연구」, 『우리문학연구』 63, 우리문화회, 2019.

이병철의 경우, 정선태의 선행연구<sup>27)</sup>에 기반하여 ‘논설’이란 명칭이 근대 신문과 함께 생겨난 것이며, 전대에 존재했던 전통적 문학 양식인 ‘논’과 ‘설’이 결합하여 생긴 용어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반재유는 ‘논설’이란 표제어 자체가 근대신문과 함께 생겨난 명칭(論+說)이란 전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시도하였다.

반재유는 기존 한문학사에서 ‘논설류’란 명칭이 ‘논변류’와 다름없이 간주되고 있다는 점<sup>28)</sup>에 착안하여, 『한국문집총간』(한국고전종합DB, 1543-1960)을 통한 ‘논설’의 용례(1824건)를 근거로 들었다. 특히 「논설」란에 논설자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서 고사(故事)를 활용한 일련의 작품군을 ‘논변류 고사’라 지칭하고, 선행연구에서 명현전고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면 단형서사에서 제외되었던 작품들<sup>29)</sup>까지 전통 논변류의 수사법 가운데 ‘사류(事類)<sup>30)</sup>’로 해당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해당 논의들은 각 신문지면 속에 한문·국한문체 문장들이 편입된 경로를 추적하며, 전통적 한문체 문장들과의 변별점 및 신문 지면의 발생 등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 3. 국한문·한문 단형 서사 연구의 과제

본 장에서는 한국 근대초기 신문(1883-1910)에 수록된 국한문·한문 단

27) 본고 2-1장 참조.

28) 논변류 문장은 고대 산문의 대종(大宗)을 이루는 설리적(說理的) 문체이다. 그것은 내용과 용도, 사법(寫法, 문장을 쓰는 법)의 차이에 따라 논(論), 사론(史論), 설(說), 해(解), 원(原), 변(辨), 의(議), 평(評), 박(駁), 고(考) 등으로 문체가 하위분류 되는데, 유헌(劉鐔)은 『문심조룡(文心雕龍)』에서 이를 논설(論說)이라 총괄하였고, 요내(姚鼐)는 『고문사류찬(古文辭類纂)』에서 논변(論辨)이라 하였다. (홍성욱, 「고려 후기 논변류 산문 연구」, 『한국한문학의 이론 산문』, 보고사, 2007, 351-352쪽, 송혁기의 「논설문의 특성과 작품 양상」, 『한국한문학의 이론 산문』, 보고사, 2007, 13-17쪽)을 참조할 것.

29) 정선태, 앞의 책, 144-145쪽.

30) 『문심조룡』에서는 ‘사류’를 문장의 밖에서 유사한 뜻을 가진 고사를 인용하고, 현재의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옛이야기를 원용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劉鐔, 『文心雕龍』 事類 第三十八)



형서사 작품, 약 3,100편의 자료 현황 및 당면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전체 근대 초기 국한문 신문들<sup>31)</sup>에 대한 단형서사 자료는 전체 9종의 신문인 『한성순보』, 『한성주보』, 『한성신보』, 『시사총보』,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만세보』, 『대한민보』, 『경남일보』에 실린 작품들이다. 지면의 한계로 인해 전체 자료의 정보를 모두 공개하기 어려우므로, 일부 목록만([표1]-[표9])을 아래에 제시한다.

## 1) 국한문 · 한문 단형서사의 자료현황 및 연구 쟁점

### (1) 매체별 단형서사의 현황과 문체적 특징

【표-1】작품목록(한성순보 · 한성주보 : 15편)

| 번호    | 신문명  | 게재란  | 제목                | 날짜            |
|-------|------|------|-------------------|---------------|
| 1     | 한성순보 | 各國近事 | 探訪西人與兩廣總督張樹聲晤談越南事 | 1883. 12. 29. |
| 2     | 한성순보 | 各國近事 | 法師談戰              | 1884. 2. 17.  |
| 3     | 한성순보 | 各國近事 | 失北甯電音問答           | 1884. 3. 27.  |
| 4     | 한성순보 | 各國近事 | 借箸可笑              | 1884. 4. 25.  |
| 5     | 한성순보 | 各國近事 | 和局質疑              | 1884. 5. 15.  |
| <hr/> |      |      |                   |               |
| 11    | 한성주보 | 國內紀事 | 問答記               | 1886. 6. 31.  |
| 12    | 한성주보 | 國內紀事 | 利原縣首鄉首校與俄國船問答記    | 1886. 7. 5.   |
| 13    | 한성주보 | 國內紀事 | 問情記               | 1886. 8. 30.  |

31) 한국 근대 초기 신문의 범위를 상정하는 작업은 매우 어렵다. 『한국신문 한 세기 - 개화기편』(한원영, 푸른사상사, 2002)에 의하면 해당시기에는 민족지를 비롯하여 해외(미국·露領 등)에서 발간된 교포신문, 친일지 및 일본이 발행한 국문판 신문과 일문지(日文紙) 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특히 친일지와 일본인 발행 국한문 신문의 경우, 소장처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학계에 소개된 한성신보를 중심으로 예비수집작업을 진행하되, 추후 국내의(일본국립국회도서관, 도쿄대학 법학정치학연구소, 고려대, 한국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대동신보, 대한일보, 경성일보, 조선신보 등에 대한 조사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단, 『조선신보』와 같이 대부분의 자료가 유실되고, 일부 호수(5-12호)만 잔존하여 그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신문들에 대해서는 현 소장처(도쿄대학)의 자료 상태를 다시 확인한 뒤,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

|    |      |    |      |            |
|----|------|----|------|------------|
| 14 | 한성주보 | 外報 | 海外奇談 | 1887.3.21. |
| 15 | 한성주보 | 外報 | 英員問答 | 1887.4.4.  |

【표-2】작품목록(한성신보 : 14편)

| 번호 | 신문명  | 게재란 | 제목                         | 날짜          |
|----|------|-----|----------------------------|-------------|
| 1  | 한성신보 | 雜報  | 閣龍(고령부스)이 亞美利加에 發見한 記라     | 1895.11.17. |
| 2  | 한성신보 | 雜報  | 閣龍(고령부스)이 亞美利加에 發見한 記라(承前) | 1895.11.19. |
| 3  | 한성신보 | 雜報  | 비스마루구翁의 逸事라                | 1895.11.21. |
| 4  | 한성신보 | 雜報  | 希臘의 雅典國賢人 에索克이란 사람에 行實이라   | 1895.11.21. |
| 5  | 한성신보 | 雜報  | 種痘之祖先醫 찌엔나氏傳               | 1896.6.6.   |
|    |      |     |                            |             |
| 10 | 한성신보 | 雜報  | 米國新大統領傳(續)                 | 1896.11.18. |
| 11 | 한성신보 | 寄書  | 夏夜誌怪                       | 1903.8.15.  |
| 12 | 한성신보 | 寄書  | 夏夜誌怪(二)                    | 1903.8.15.  |
| 13 | 한성신보 | 雜報  | 落心萬千                       | 1904.2.7.   |
| 14 | 한성신보 | 雜報  | 甲乙時論                       | 1904.8.21.  |

【표-3】작품목록(시사총보 : 27편)

| 번호 | 신문명  | 게재란 | 제목       | 날짜         |
|----|------|-----|----------|------------|
| 1  | 시사총보 | 論說  | -        | 1899.1.26  |
| 2  | 시사총보 | 論說  | 金翁傳      | 1899.2.1   |
| 3  | 시사총보 | 論說  | 金翁傳(前號續) | 1899.2.3   |
| 4  | 시사총보 | 論說  | 金翁傳(前號續) | 1899.2.5   |
| 5  | 시사총보 | 論說  | -        | 1899.2.7   |
|    |      |     |          |            |
| 23 | 시사총보 | 論說  | 鄉客問對     | 1899.8.5   |
| 24 | 시사총보 | 論說  | 政局觀瀾     | 1899.8.11  |
| 25 | 시사총보 | 論說  | 時令       | 1899.8.17. |
| 26 | 시사총보 | 詞苑  | 古今一夢錄序   | 1899.3.26  |
| 27 | 시사총보 | 詞苑  | 與友人書     | 1899.3.28  |

【표-4】작품목록(황성신문/1898-1904 : 232편)

| 번호  | 신문명  | 게재란 | 제목      | 날짜          |
|-----|------|-----|---------|-------------|
| 1   | 황성신문 | 論說  | -       | 1898.9.13.  |
| 2   | 황성신문 | 論說  | -       | 1898.9.23.  |
| 3   | 황성신문 | 論說  | -       | 1898.9.27.  |
| 4   | 황성신문 | 論說  | -       | 1898.9.30.  |
| 5   | 황성신문 | 論說  | -       | 1898.10.14. |
|     |      |     |         |             |
| 228 | 황성신문 | 論說  | 野人俚談    | 1904.4.9    |
| 229 | 황성신문 | 論說  | 亞賓先生問答  | 1904.5.6.   |
| 230 | 황성신문 | 論說  | 讀史管見    | 1904.6.13.  |
| 231 | 황성신문 | 論說  | 讀史管見(續) | 1904.6.14.  |
| 232 | 황성신문 | 論說  | 農談野說    | 1904.7.23.  |

【표-5】작품목록(황성신문/1905-1910, 877편)

| 번호  | 신문명  | 게재란  | 제목        | 날짜          |
|-----|------|------|-----------|-------------|
| 1   | 황성신문 | 論說   | 讀埃及近世史    | 1905.10.7.  |
| 2   | 황성신문 | 論說   | 讀美國獨立史    | 1905.8.19.  |
| 3   | 황성신문 | 論說   | 讀法國革新史    | 1905.8.24.  |
| 4   | 황성신문 | 論說   | 讀法國革新史(續) | 1905.8.26.  |
| 5   | 황성신문 | 大東古事 | 童巾城은      | 1906.10.10. |
|     |      |      |           |             |
| 873 | 황성신문 | 局外冷評 | 子息을       | 1910.1.7.   |
| 874 | 황성신문 | 局外冷評 | 近日에       | 1910.1.8.   |
| 875 | 황성신문 | 局外冷評 | 國民報의      | 1910.1.9.   |
| 876 | 황성신문 | 論說   | 讀土耳其維新近史  | 1910.3.24.  |
| 877 | 황성신문 | 論說   | 讀渤海攷      | 1910.4.28.  |

【표-6】작품목록(대한매일신보, 667편)

| 번호  | 신문명    | 게재란 | 제목       | 날짜            |
|-----|--------|-----|----------|---------------|
| 1   | 대한매일신보 | 雜報  | 甲乙偶談     | 1905. 10. 27. |
| 2   | 대한매일신보 | 雜報  | 警告同胞文    | 1905. 12. 10. |
| 3   | 대한매일신보 | 雜報  | 警告同胞文(續) | 1905. 12. 12. |
| 4   | 대한매일신보 | 寄書  | 路上問答     | 1906. 1. 4.   |
| 5   | 대한매일신보 | 雜報  | 淵齋송先生傳   | 1906. 2. 3.   |
|     |        |     |          |               |
| 663 | 대한매일신보 | 雜報  | 無絃琴      | 1910. 8. 6.   |
| 664 | 대한매일신보 | 雜報  | 三轉工資     | 1910. 8. 7.   |
| 665 | 대한매일신보 | 雜報  | 蟬語罵世     | 1910. 8. 9.   |
| 666 | 대한매일신보 | 雜報  | 能言鸚鵡     | 1910. 8. 16.  |
| 667 | 대한매일신보 | 雜報  | 病身會社     | 1910. 8. 17.  |

【표-7】작품목록(만세보, 585편)

| 번호  | 신문명 | 게재란     | 제목      | 날짜           |
|-----|-----|---------|---------|--------------|
| 1   | 만세보 | 雜報      | 三行葉葉    | 1906. 6. 17. |
| 2   | 만세보 | 夏雲奇峯    | 夏雲奇峯    | 1906. 6. 17. |
| 3   | 만세보 | 國文讀者俱樂部 | 國文讀者俱樂部 | 1906. 6. 17. |
| 4   | 만세보 | 三韓故事    | 三韓故事    | 1906. 6. 17. |
| 5   | 만세보 | 雜報      | 三行葉葉    | 1906. 6. 28. |
|     |     |         |         |              |
| 581 | 만세보 | 本朝故事    | 本朝故事    | 1907. 6. 25. |
| 582 | 만세보 | 三韓故事    | 三韓故事    | 1907. 6. 26. |
| 583 | 만세보 | 三韓故事    | 三韓故事    | 1907. 6. 27. |
| 584 | 만세보 | 本朝故事    | 本朝故事    | 1907. 6. 28. |
| 585 | 만세보 | 本朝故事    | 本朝故事    | 1907. 6. 29. |

【표-8】작품목록(대한민보, 602편)

| 번호  | 신문명  | 게재란  | 제목   | 날짜         |
|-----|------|------|------|------------|
| 1   | 대한민보 | 雜報   | 森羅萬像 | 1906.6.2.  |
| 2   | 대한민보 | 諷林   | 諷林   | 1906.6.2.  |
| 3   | 대한민보 | 雜報   | 五聲聚一 | 1906.6.2.  |
| 4   | 대한민보 | 雜報   | 森羅萬像 | 1906.6.13  |
| 5   | 대한민보 | 諷林   | 諷林   | 1906.6.13  |
|     |      |      |      |            |
| 598 | 대한민보 | 寸寸縈目 | 寸寸縈目 | 1910.8.17. |
| 599 | 대한민보 | 寸寸縈目 | 寸寸縈目 | 1910.8.18. |
| 600 | 대한민보 | 環回珠結 | 環回珠結 | 1910.8.18. |
| 601 | 대한민보 | 環回珠結 | 環回珠結 | 1910.8.26. |
| 602 | 대한민보 | 環回珠結 | 環回珠結 | 1910.8.27. |

【표-9】작품목록(경남일보, 75편)

| 번호 | 신문명  | 게재란  | 제목      | 날짜          |
|----|------|------|---------|-------------|
| 1  | 경남일보 | 三綱逸史 | -       | 1909.10.15. |
| 2  | 경남일보 | 三綱逸史 | 晉州孝烈(一) | 1909.11.5.  |
| 3  | 경남일보 | 三綱逸史 | 晉州孝烈(二) | 1909.11.6.  |
| 4  | 경남일보 | 三綱逸史 | 晉州孝烈(三) | 1909.11.7.  |
| 5  | 경남일보 | 三綱逸史 | 晉州孝烈(四) | 1909.11.16. |
|    |      |      |         |             |
| 71 | 경남일보 | 夜學科  | 體育論     | 1910.11.27. |
| 72 | 경남일보 | 夜學科  | 豚論      | 1910.11.29. |
| 73 | 경남일보 | 夜學科  | 燈火論     | 1910.12.3.  |
| 74 | 경남일보 | 夜學科  | 松說      | 1910.12.7   |
| 75 | 경남일보 | 夜學科  | 賞楓說     | 1910.12.9   |

위 표는 매체별 국한문·한문 단형서사 작품의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관보의 성격을 띤 신문들과 일본의 한국 침략을 위한 선전 기관지, 민간자본

신문 등 다양한 매체별로 발표된 단형서사 자료들에 대한 검토는 특정시기 집중적으로 출현한 서사양식의 문학사적 의미를 고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주목해야할 부분은 매체별 단형서사의 문체적 특징 및 서사양식의 전거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그동안 특정 매체에 실린 기사들에 대한 문체적 특징을 논의한 연구들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비록 해당 논의들이 서사자료 외 일반 기사들까지 대상 범위로 설정하고 있어 실상 단형서사 연구들로 국한시키기는 어렵지만, 단형서사를 포함한 동시기 국한문체의 다양한 결을 분류·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 문체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국한문체에 대한 초창기 논의로는 김형철·민현식<sup>32)</sup>을 들 수 있다.<sup>33)</sup> 김형철은 근대시기 국한문체를 ㉠직역문어체(한문체/현토체국한문체), ㉡의역문어체(국한문체) ㉢구어체(국한문체/국문체) 나누고 해당시기 공식문체가 한문체에서 국문체로 정착되는 과도기 문체로서 국한문체의 범위를 의역문어체 내지 구어체까지 넓게 잡아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민현식의 경우, 근대시기 국한문체를 ㉠구결문식 국한문체(구결 현토식 국한문체, 호남학보식 국한문체) ㉡이두문식 국한문체(어절 현토식 국한문체, 서유견문식 국한문체) 구분하였다. 구결문식 국한문체는 통감부 시기『황성신문』을 비롯한 여러 신문, 잡지에서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두문식 국한문체는 국어 어순식 한문(서기체문)으로 설명하였다.

이들의 논의는 이후 홍종선(㉠한문체 ㉡한문구체 ㉢한문어체 ㉣한자어체), 김홍수(㉠구결문식한문체 ㉡국한문혼용체(漢主國從) ㉢국한자혼용체(國主漢從), 배수찬(㉠구결현토체와 ㉡어절현토체), 임상석(㉠한문문장체 ㉡한문구결체 ㉢한문단어체)을 거쳐 김재영(㉠현토한문 ㉡구결형 한

32) 김형철, 「갑오경장기의 문체」, 『새국어생활』 4권 4호, 1994; 민현식, 「개화기 국어문체에 대한 종합적 연구(1)」, 『국어교육』 83,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4; 민현식, 「개화기 국어문체에 대한 종합적 연구(2)」, 『국어교육』 85,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4.

33) 해당 논의 또한, 앞서 김상대(『中世國語 口訣文의 國語學的 研究』, 한신문화사, 1985)와 심재기(『開化期の 教科書 文體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07, 국어국문학회, 1992) 등의 선행연구를 기반하고 있다.

문해체문 ㉔단어형 한문해체문) 등의 논의<sup>34)</sup>로 확장되었다.

그 밖에도 『한성순보』·『한성주보』의 국한문체를 다룬 허재영·박은정<sup>35)</sup>과 『만세보』의 부속국문체를 검토한 김영민·배현자<sup>36)</sup> 등의 논의가 있다. 이들은 근대 사회로의 이행기에 나타난 과도기적 문체로서 한문을 대신 하여 등장한 국한문체·부속국문체에 주목하고 있거나 문체별 기사의 특징 및 문체 선택의 배경 등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김영민은 내부필자가 쓴 게재란의 기사들과 내·외부 필자가 섞인 게재란에 사용된 부속국문체의 차이를 지적하였으며, 나아가 신문연재 소설·단행본 소설(혈의누) 문체의 비교를 통해 순한글문장에서 부속국문체로 바뀌는 과정에 대해 추적하였다. 해당 논의는 당시 한문에 익숙했던 집필진과 한글 독자층 간의 간극의 타개하고자 했던 문체 선택의 과정과 의미 등을 추적한 논의로서, 앞으로의 국한문·한문 단형서사 문체 연구에 있어서도 일정부분 방향성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배현자도 『만세보』의 기사들은 문체의 전시장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문체들이 섞여 있다고 지적하며, 그 가운데 음독(音讀)과 훈독(訓讀)을 섞어 부속국문을 단 문장들을 소개하기도 하였다.<sup>37)</sup> 그러나 『만세보』의 이 같은 문체적 특징들은 대체로 김영민의 견해에 따라 순한글문장에서 부속국문체로 이행하는 과정에 나타난 현상으로서만 주목하였다. 그러나 이는 근대시기 국내 국한문 자료 가운데 음독이 아닌, 훈독으로 국한문이 작성된

34) 홍종선 「현대 국어문체의 발달」, 『현대국어의 형성과 변천(3)』, 박이정, 2000; 김홍수, 「이른바 개화기의 표기체 유형과 양상」, 『국어문학』 39, 국어문학회, 2004; 배수찬, 「근대적 글쓰기의 형성과 정연구」, 소명, 2008; 임상성, 『20세기 국한문체의 형성과정』, 지식산업사, 2008; 김재영, 「대한민국의 문체상황과 독자층에 대한 연구」, 『현대문학의연구』 40,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35) 허재영, 「근대개봉기의 어문정책(1)」, 『한민족문화연구』 14, 한민족문화학회, 2004; 박은정, 「『한성주보』의 국문체, 국한문체 기사 연구」, 『우리말글』 95, 우리말글학회, 2022. 그 외에도 국어학적 입장에서 『한성순보』·『한성주보』의 한글 문체를 논의한 김혜진(『한성주보의 국어학적 연구』, 안동대석사논문, 2008)과 김영민(『한성주보 소재 한글체 기사의 특질 연구』, 『대동문화연구』 107,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2019)의 논의가 있다.

36) 김영민, 『한국근대소설의 형성과정』, 소명, 2005; 김영민, 「만세보와 부속국문체 연구」, 『대동문화연구』 64,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2008; 배현자, 「『만세보』소재 단형 서사물의 특성 연구」, 『근대개봉기 단형 서사문학 연구』, 소명,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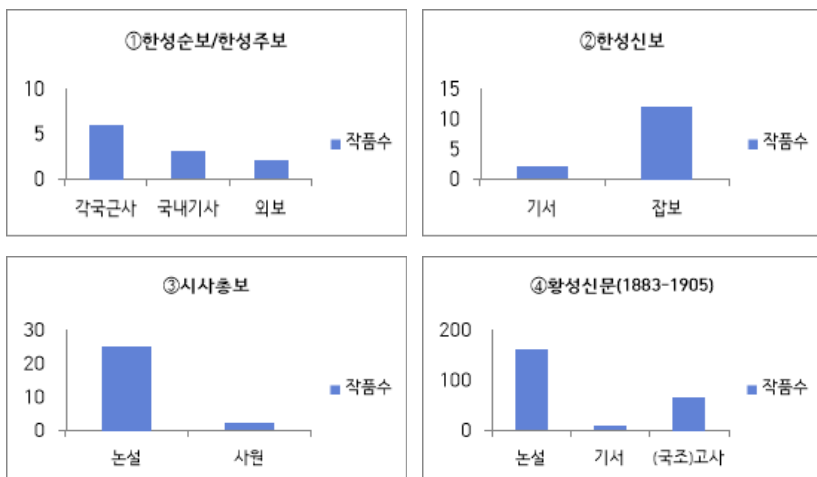
37) 배현자, 앞의 논문, 192-193쪽 참조.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기존의 한문체-국한문체-한글체라는 도식적 발전 과정의 틀에서 벗어나 세 문체가 공존했던 시기, 각 문체의 역할에 대한 흥미로운 논의들이 『만세보』의 부속국문체 연구를 통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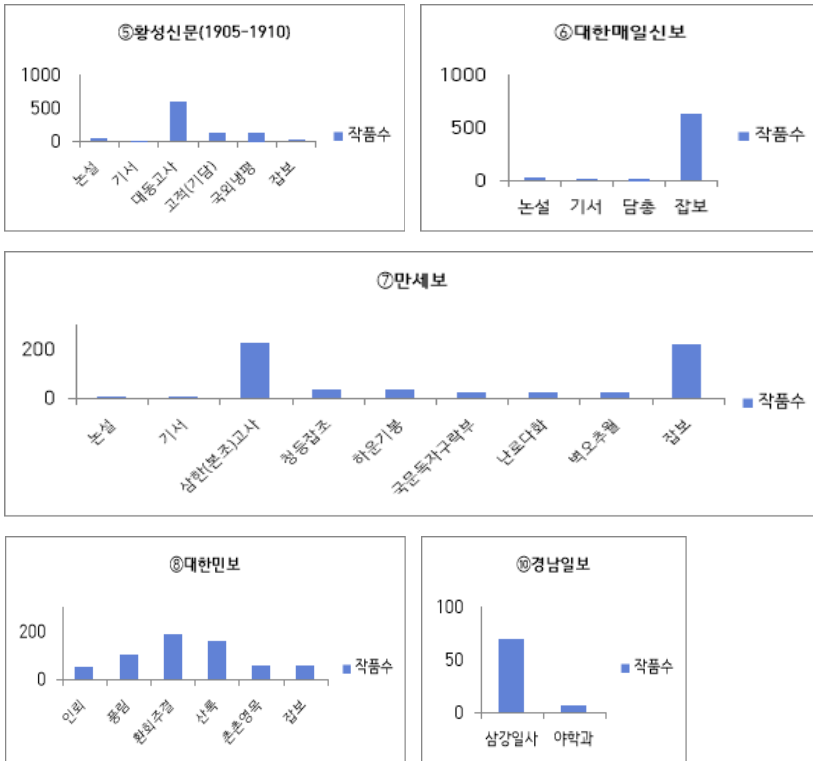
근대시기 문체연구는 다양한 근대 서사문학에 대한 전거를 확인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 산문양식과의 친연성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닌, 근대 매체를 통한 양식적인 차이가 만들어지는 지점에 대한 논의들을 통해 근대 문체의 특질과 정립 과정을 상세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필자가 밝혀지지 않은 자료들에 대해서는 집필진들의 문집과 저작물 등을 확인하여 저자를 추적하고, 매체별 성격에 따라 변형 및 재인용된 의미들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목록화한 매체별 자료들에 대한 총괄적 검토는 앞서 특정 매체에 국한되어 진행된 문체연구에 대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이며, 그간 축적된 선행연구들의 성과를 아우를 수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2) 시기별 · 게재란별 단형서사의 현황과 특징

【표-12】 1883-1904년 : 한성순보/주보, 한성신보, 시사총보, 황성신문





【표-13】 1905-1910년<sup>38)</sup> :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만세보, 대한민보, 경남일보

위 [표-12] · [표-13]은 1905년을 기점으로 한 전후 시기(1883-1904년 / 1905-1910년)에, 각 매체에 실린 게재란별 단형서사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1905년을 중심으로 시기 구분을 시도한 것은, 근대 매체들의 공통된 「소설」란 출현 시점<sup>39)</sup>에 대한 주목뿐만 아니라, 해당 시점 이후 단형서사의 주제

38) 『만세보』와 『대한민보』의 경우, 수많은 단형서사 작품(기사)들이 특정 게재란의 명칭을 밝히지 않은 채 산발적으로 발표된 특징들이 보인다. 해당 작품들 가운데 동일한 제목으로 일련의 많은 연재물을 발표한 경우에는 특정 게재란으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표-13】(만세보 · 대한민보)에서 소개한 몇몇 게재란을 제외한 대다수의 작품들이 몇 편의 기획 연재로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본고에서는 해당 작품들을 모두 게재란으로 데이터화하기 어려운 관계로, 20편 이하로 작품이 발표된 작품들은 「잡보」란으로 분류하였음을 밝힌다. 해당 게재란의 분류와 특징에 대한 연구는 추후 과제로 삼기로 한다.

39) 신문에서 「소설」란이 발견된 것은 『한성신보』 이후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의 경우가 처음이다. 『대한매일신보』가 「소설」란을 둔 1906년 2월 6일 이후, 한국 근대신문 및 잡지에서는 「소설」란

나 장르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의 모색과 시도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성신문』([표12]-④, [표13]-⑤)의 경우, 두 시기를 아울러 꾸준히 발행(1898-1910)되었던 신문이기 때문에, 시기별 자료의 특징을 비교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예컨대, 『황성신문』의 「논설」란과 「잡보」란 등에 꾸준히 서평 형식의 논설인 독후설(讀後說)과 고사(故事) 연재물들이 발표되었는데, 1905년 이후로 서평의 소재가 동양의 고사에서 서양의 역사 전기류(歷史傳記類)로 옮겨가게 되고, 일련의 고사 연재물도 작품에서 다루는 시기나 제재, 주제의식 등에서 한층 다양해진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sup>40)</sup>

이 같은 특징들은, 『황성신문』의 단형서사 분포가 「논설」란 위주(1883-1904)에서 다양한 지면으로 확산(1905-1910)된 면모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06년 이후 「대동고사」와 「명소고적」 등에서 인물기사<sup>41)</sup>가 등장하고, 1907년 이후에는 「잡보(비설)」와 「국외냉평」 등에서 근대소화(笑話)<sup>42)</sup> 형식의 서사물들이 발표되기 시작했다.<sup>43)</sup> 이는 [표-12]·[표-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황성신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동시기 다른 신문들에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다. 『대한매일신보』의 경우에도 1907년 이후 국한문판(「잡보」)과 국문판(「시사평론」)에 「시사평론가사」나 가창·연행성이 강조된 ‘극텍스트’ 등의 다양한 단형서사물이 발표된 바 있다.<sup>44)</sup>

이 일시에 활성화되어 나타난 사실은 특기할 만하지만, 아직까지 그 이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김영민, 앞의 책, 2006, 42쪽.)

40) 반재유, 『『황성신문』의 독후설 연구』, 『배달말』 67, 배달말학회, 2020, 93-116쪽; 반재유, 『『황성신문』의 ‘고사’ 연구』, 『국학연구논총』 17, 태민국학연구원, 2016, 201-228쪽; 반재유, 「근대신문 소재 명소고적과 기담」, 『연민학지』 39, 연민학회, 2023, 369-401쪽.

41) 김영민은 ‘인물기사’를 기사체 양식의 창작물로 파악하고, 양식분류상 ‘서사적 논설’ 속에 포함시켜 고찰하였다. (김영민, 『역사·전기소설 연구』, 『애산학보』 19, 애산학회, 1996, 118-128쪽; 김영민, 앞의 논문, 2002, 117-118쪽; 김영민, 「〈역사·전기소설〉의 형성과 전개」, 『한국근대소설의 형성과정』, 소명, 2005, 40-41쪽 참조)

42) 1920년대 중반까지 ‘소화’라는 용어는 후대의 ‘재담’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쓰였지만, 1920년대 후반을 전후하여 ‘소화’는 유머로, ‘재담’은 위트로 정착되었다. 또한 ‘소화’는 매체에 기록되어 읽는 형태로 나타나는 반면, ‘재담’은 재담꾼이나 구연을 하는 성향을 드러냈다. (김준형, 「근대전환기 패설의 변환과 지향」, 『구비문학연구』 34, 한국구비문학학회, 2012, 103-105쪽 참조.)

43) 반재유, 『황성신문의 시평연구』, 『한국학연구』 49, 인하대한국학연구소, 2018.

44) 양세라, 「한국 근대 회곡 형성의 양식적 기반」, 『드라마연구』 26, 한국드라마학회, 2007; 박종덕, 「『대한매일신보』의 ‘사회등가사’와 ‘시사평론가사’ 비교고」, 『현대문학이론연구』 45, 현대문학이론학회, 2011.

『만세보』에서도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하는 단형 서사물들이 발간호(1906. 6. 17.)부터 「논설」·「잡보」란 뿐만 아니라, 「삼한(본조)고사」·「청등잡조」·「하운기봉」·「국문독자구락부」·「난로다화」·「벽오추월」 등 다양한 게재란의 명칭으로 꾸준히 발표되었고, 1909-1910년 사이 등장한 『대한민보』(「인뢰」·「풍림」·「환회주결」·「산록」·「촌촌영목」), 『경남일보』(「삼강일사」·「야학과」) 또한 동일한 특징이 발견된다.

근대신문에 실린 단형서사 작품들은 대체로 게재란을 통해 글의 양식을 밝히고 있으므로, 게재란별 자료 분포 현황([표-12]·[표-13])은 당시 모호했던 신문지면의 성격 및 서사양식에 대한 분류 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1905-1910년에 발표된 게재란의 명칭이나 구분이 모호한 자료들의 경우, 차후 현재의 양식개념에 준한 별도의 기획 작업을 시도할 계획이다.

1910년 이후에도 「리어약(利於藥)」(『매일신보』), 「일소화(一笑話)」(『매일신보』), 「소화(笑話)[우습거리]」(『매일신보』) 등 ‘소화’의 표제를 단 연재물들이 발표되었는데, 해당 작품들은 추후 일제치하에 필사(『화세계(花世界)·금자동(金紫洞)』) 및 간행(『절도백화(絶倒百話)』·『개권회회(開卷嬉嬉)』·『소천소지(笑天笑地)』)된 재담집에 전재·변이(誤讀·縮約)되어 재수록된 면모<sup>45)</sup>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근대소화 형식의 기사들이 극적 텍스트로서 추후 재담의 형태로 발전된 구체적 근거라 할 수 있다.

해당 자료들에 대한 검토는 근대 매체를 통해 시기별·게재란별로 변모되어 전개된 전통 문학양식의 면모를 조망함과 더불어, 그동안 근대 소설 양식론과 구분되어 전개된 개화가사 연구의 관점들<sup>46)</sup>까지 아울러 검토한다

45) 정명기, 「일제 치하 재담집에 대한 재검토」, 『국어국문학』 149, 국어국문학회, 2008.

46) 1907-1910년 사이 『대한매일신보』, 『대한민보』 등에 동시다발적으로 시대풍자적 성격이 강한 개화가사의 작품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대한매일신보』를 중심으로 ‘우국경시가’(구자균, 「韓末憂國警時歌」, 『문리논집』 4, 고려대학교, 1959.), ‘사회등가사’(조남현, 「사회등가사의 풍자방법」, 『국어국문학』 72·73, 국어국문학회, 1976.), ‘고정란가사’(강은해, 「개화기 가사 연구」,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1979.), ‘신가사’(장성진, 「개화가사의 서술구조와 현실인식」,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1991.), ‘시사평론(시평가사)’(김교봉·설성경, 『근대전환기 시가 연구』, 국학자료원, 1996.) 등 다양한 명칭으로 일컬어지며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2) 국내 일본인 발행 신문의 국한문·한문 단형서사 자료

근대시기 새로운 단형서사 양식의 출현을 논하기 위해서는 내재적 요인 뿐만 아니라 외부적 요인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기실 단형서사에 대한 연구 자체가 근대 서사양식의 내재적 발전 과정을 밝히기 위해 비롯된 논의인 만큼, 상대적으로 외부적 요인에 대한 검토가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일본 근대매체의 영향관계 등 외부적 요인에 대한 검토는 근대 서사의 다층적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특히 국내에서 일본인이 발행한 신문들이 상당수 존재했으며, 한글을 비롯하여 국한문·한문으로 발표된 기사들도 적지 않게 실려있다. 그 가운데, 국한문·한문 서사 작품들은 독자층을 조선 식자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소개한 국내 신문 단형서사들과 함께 반드시 검토해야 할 자료들이다.

일본인이 한국에서 발행한 최초의 신문이자 신식활자 인쇄물은, 1881년 12월 재부산항상법회의소(在釜山港商法會議所)에서 간행한 『조선신보(朝鮮新報)』이다.<sup>47)</sup> 『조선신보』에는 일어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나 한문 기사도 꾸준히 실렸다. 특히, 한문기사의 경우 조선의 식자층을 독자로 상정하고 있으면서도, 일본의 지식인 및 정치인 등을 의식한 논평·현안 등을 싣고 있는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sup>48)</sup>

『조선신보』는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호수(5호-12호) 자체가 적지만, 남은 기사 가운데도 단형서사의 성격을 가진 한문기사들을 찾을 수 있다.<sup>49)</sup> 인물기

47) 한국고서동우회편, 『朝鮮新報(影印本)』, 한국출판판매, 1984; 채백, 「조선신보에 관한 일연구」, 『한국언론학보』 26, 한국언론학회, 1991.

48) 한글 기사도 존재(7호, 1882.3.5.)하는데, 일본어 단신 기사를 번역한 약 세 줄 정도의 짧은 기사이다. (김소영, 「텍스트로서 조선신보의 한문기사 고찰」, 『일본사상』 37, 한국일본사상학회, 2019. 168쪽 참조)

49) 「關稅或問 第一」, 『朝鮮新報』 第七號, 1882.2.7; 「關稅或問 第一」, 『朝鮮新報』 第八號, 1882.2.18; 「關稅或問 第一」, 『朝鮮新報』 第九號, 1882.2.28; 「關稅或問 第一」, 『朝鮮新報』 第十號, 1882.3.8; 「雜報:京報曰」, 『朝鮮新報』 第十一號, 1882.3.18; 「雜報:日本人」, 『朝鮮新報』 第十一號, 1882.3.18.

사의 성격을 가진 「조선임경업전」<sup>50)</sup>이나 「조선인 자녀교육 이야기」<sup>51)</sup>, 「안변의 변고」<sup>52)</sup> 등의 경우, 일본어로 연재되어 있어 본고의 단형서사 범위에는 제외하였지만, 작품을 연재하기 전 편집자 해설을 통해 작품의 교훈적 주제를 설명<sup>53)</sup>하거나, 제삼자에게 전해 들은 기묘기태(奇妙奇態)의 풍속을 소개<sup>54)</sup>하는 등의 단형서사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조선신보』는 『한성신보』를 비롯하여 이후 일본인이 발행한 신문에 실린 한문·국한문 기사의 주제 및 독자층, 게재란 등의 특징들을 비교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sup>55)</sup>

『조선신보』 이후로도 일본인들은 『인천경성격주상보(仁川京城隔週商報)』(1890.1), 『조선순보(朝鮮旬報)』(1891.9), 『부산상황(釜山商況)』(1892.7), 『조선시보(朝鮮時報)』(1894.11), 부산일보(1907.10), 조선신문(1908.12) 등의 신문이 지속적으로 간행되었지만, 대부분 일문으로 발행되었다. 그 가운데 한문·국한문 기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신문으로는 『한성신보』를 비롯하여 『대한일보』, 『대동신보』, 『경성일보』 등이 있다.

50) 「朝鮮林慶業傳」, 『朝鮮新報』 第八號, 1882.2.18; 「朝鮮林慶業傳」, 『朝鮮新報』 第九號, 1882.2.28; 「朝鮮林慶業傳」, 『朝鮮新報』 第十一號, 1882.3.18; 「朝鮮林慶業傳」, 『朝鮮新報』 第十二號, 1882.3.28.

51) 「朝鮮人子育の話」, 『朝鮮新報』 第八號, 1882.2.18; 「朝鮮人子育の話」, 『朝鮮新報』 第九號, 1882.2.28.

52) 「雜報」, 『朝鮮新報』 第拾號, 1882.3.8. 일명 ‘안변의 변고’라 불리는, 유람하던 일본인들을 조선인들이 집단 매질하여 1명이 죽은 사고에 대한 내용으로, 일문 문장이다. (권정원·김소영, 『국역 조선신보』, 보고서, 2022, 135쪽 각주 4번)

53) “◎ 編者曰く、朝鮮國烈士林慶業の功績多きは、粗ぼ世人の知る所なるが、曾て同國の學士金花山人の編次したる傳あり。我譯官實迫繁勝君、頗る烈士の功績を慕ひ、今、其傳を譯せるあり。余、頃日、これを閱するに、誠に烈士の艱難辛苦、看者をして斷腸の思ひあらしめ、かつや自ら朝鮮内地の事情を知るに於て裨益するもの、蓋し鮮少ならず、故に、余、敢て稿を君に請ひ、本紙每號雜報欄内に陸續載せて、看官諸彦の高覽に供すと云爾。” (『雜報：編者曰く』『朝鮮新報』 第八號, 1882.2.18.)

54) “◎ 朝鮮人子育の話 [前號の續] 是に由て之を觀れば、中人以上も亦汚物を犬に嘗めさせるものと見ゆ。又聞く處に據れば、朝鮮人の男色を好む風の盛んなるは八道同じけれども、小兒の時より陰部を犬に嘗めさせ、自然其摩擦の習慣になりて、男子と雖ども陰部を人に扱はる、も敢て忌みざる由、實に奇妙奇態の風俗なり。又畿内邊は殊に色慾盛んにして姦通する者も頗る多く、夫が爲め實の父母をしらざるもの多しといふ。” (『雜報：朝鮮人子育の話 [前號の續]』 『朝鮮新報』 第九號, 1882.2.28.)

55) 지금까지 『조선신보』에 실린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로는 Altman, 김소영, 권정원 등이 있다. (Altman, Albert A, 「Korea's First Newspaper: The Japanese Chosen shinpo」,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43, No. 4, 1984; 김소영, 앞의 논문; 권정원, 「조선신문 한문기사의 계몽적 역할과 의미」, 『석당논총』 83, 동아대 석당학술원, 2022.)

【표-14】 국내 일본인 발행 국한문 · 한문 신문 목록 (1882-1910)

| 번호 | 신문명  | 발행기간                                                      | 소장처           |
|----|------|-----------------------------------------------------------|---------------|
| 1  | 조선신보 | 1882.3.5.-1882.5.15. (5호-12호)                             | 도쿄대학 법학정치학연구소 |
| 2  | 한성신보 | 1895.2.17.-1906.8.                                        | 연세대 중앙도서관     |
| 3  | 대한일보 | 1904.3.10.-8.17./1905.12.10.-12.17.                       | 고려대 중앙도서관     |
|    |      | 1904.8.24.-1905.2.2./1905.6.13.-1906.8.29. <sup>56)</sup> | 한국연구원         |
| 4  | 대동신보 | 1904.4.18.-1906.7.                                        | 일본국립국회도서관     |
| 5  | 경성일보 | 1906.9.1.-1907.4.20. 국한문판<br>(1907.4.21.-1945.12.11. 일본판) | 일본국립국회도서관     |

먼저 『한성신보』는 언론학 분야에서 처음 소개<sup>57)</sup>된 이후, 신문에 실린 서사문학 자료(국문 · 국한문 · 일본어)들의 중요성으로 인해 국문학계에도 꾸준히 주목을 받았던 신문이다.<sup>58)</sup> 일련의 연구들은 신문에 실린 개별 작품들(<나과륜전>, <경국미담>, <옛장사> 등)에 주목하였는데, 이후 김영민에 의해 신문에 발표된 서사문학 자료에 대한 연구 및 자료집<sup>59)</sup>이 출간됨으로써 서사 자료 수록의 배경 및 자료 전반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리된 해당 자료들은 대부분 국문 자료들로서, 이유미, 김찬기, 강현조, 김준형 등<sup>60)</sup> 일련의 후속 연구들 또한 전제 내지 야담계 소설 등 국문연재소

56) 1905.2.3.~6.12. (미확인)

57) 최준, 「한성신보의 사명과 역할: 일본 외무성의 기관지 선구」, 『신문연구』, 1961; 최준, 「일인계 국문판지의 유형고」, 『정경논집』 1, 중앙대 정경대학, 1969; 채백, 「한성신보의 창간과 운용에 관한 연구」, 『신문연구소학보』 27, 서울대신문연구소, 1990 등.

58) 한원영, 「한국 개화기 신문 한성신보에 연재된 소설고」, 『국어교육』 61, 한국어교육학회, 1987; 권영민, 「『한성신보』와 최초의 신문 연재소설」, 『문학사상』, 1997; 布袋敏博, 「二つの朝鮮語譯, 『經國美談』について」, 『近代朝鮮文學における日本との關連様相』, 綠蔭書房, 1998; 김재영, 「근대 계몽기 소설 개념의 변화 - 두 가지 외래적 원천」, 『현대문학의연구』 22, 한국문학연구학회, 2004; 박수미, 「개화기 신문소설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5; 설성경, 「신소설연구」, 새문사, 2005.

59) 김영민, 「구한말 일본인 발행 신문과 한국의 근대소설」, 『현대문학의연구』 30, 한국문학연구학회, 2006; 김영민, 앞의 책, 2008.

60) 이유미, 「근대초기 신문소설의 여성인물 재현 양상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16, 한국근대문학학회, 2007; 김찬기, 「『한성신보』 소재 전제 서사물의 역사적 성격」, 『비평문학』 39, 한국비평문학회, 2011; 강현조, 「근대 초기 신문의 전제 서사 수용 및 변전 양상 연구」, 『현대문학의연구』 51,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178-179쪽; 김준형, 「근대 초기 신문의 야담 활용 양상과 고전소설의 변모」, 『고소설연구』 37, 한국고소설학회, 2014; 김준형, 「근대전환기 야담을 보는 시각」, 『한국문학연구』 49, 동국대한국문학연구소, 2015.

설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한성신보』는 초창기(1895. 2. 17. -1896. 5.)<sup>61)</sup> 「잡보」란에 실린 서사문학 자료들이 대부분 국한문체였던 만큼, 기존 조사된 국문 서사 작품들 보다, 앞으로 검토해야 할 국한문 서사 작품들이 산적해 있다. 예컨대, 「雜報- 비스마루구翁의 逸事라」(1985. 11. 21.); 「雜報- 希臘의 雅典國賢人에 索克이 란 사람에 行實이라」(1985. 11. 21.) 등 국한문으로 작성된 인물기사들은 앞서 일문(日文)으로 작성된 『조선신보』의 인물기사와의 변별점 및 추후 국내 신문에 미친 영향관계 등을 밝히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그 밖에도 『한성신보』는 당시 일본인 신문 가운데서도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뒤이어 창간된 한국 신문들이 서사문학 자료를 수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 점<sup>62)</sup>, 그리고 「잡보」란에 게재되었던 서사물들이 추후 『제국신문』(「소설」란) 등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연재물로 발표되었다는 점<sup>63)</sup> 등을 통해 근대 단형 서사문학을 정리하기 위해 반드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선행과제임을 알 수 있다.

『대한일보』의 경우, 이유미 · 정보라미 · 강현조에 의해 「잡보」란에 실린 <쌍봉기연> 외 29편의 한글 서사작품들이 고찰된 바 있지만,<sup>64)</sup> 정작 신문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국한문 기사<sup>65)</sup>의 서사작품들에 대한 검토는 부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현조의 경우, 한글 단형서사 작품(8편) 중에서도 조선후기의 한문야담(『계서야담』 · 『청구야담』 · 『금계필담』 · 『동야회집』 · 『고금소총』 · 『기문총화』)과 구비설화(<지령이 국으로 시어머니 봉양한

61) 창간호부터 제101호까지의 소형판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1895년 9월 9일자 제102호 倍大版부터는 1-2면은 국한문 및 순 국문으로, 3면은 일문으로 기사가 집필되었고, 4면은 주로 일문으로 된 광고가 게재되었다. (강현조, 「근대 초기 매체의 문체 선택 및 분화 양상 연구」, 『서강인문논총』 42,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2015, 62쪽)

62) 김영민, 앞의 논문, 2006, 7-44쪽 참조.

63) 강현조, 앞의 논문, 2013.

64) 이유미, 「일본인 발행 미디어의 기획된 단편소설」, 『현대문학의연구』 41,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정보라미, 「〈마상루〉계 피난서사 자료의 상호 관계 재고」, 『우리문학연구』 45, 우리문학회, 2015; 강현조, 「『대한일보』 소재 단형서사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39, 한국근대학회, 2019.

65) 창간호(1904. 3. 10.)와 제2호(1904. 3. 15.)까지의 모든 기사는 국한문으로 작성되었지만, 제3호(1904. 3. 16.)부터는 잡보란에 한글기사가 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233호(1905. 1. 5.)부터는 다시 국한문 기사만이 게재되었다. (강현조, 앞의 논문, 2019, 178-179쪽 참조)

며느리》·〈도깨비감투설화〉·〈발치설화〉) 작품들이 수용된 용례들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국한문 자료 연구에 대한 후속 작업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또한 『대한일보』는 일본인 발간 신문이지만, 최찬식의 부친이자 한학자인 최영년이 한국인 기자로 활동(1904-1905)한 바 있다.<sup>66)</sup> 그가 편찬했던 설화집(『실사총담』)·악부시집(『해동죽지』)·한시집(『시금강』)<sup>67)</sup> 등과 『대한일보』의 국한문 서사 자료들에 대한 비교 작업은, 그동안 친일 한학자로만 치부되던 최영년의 전통적 문학론이 당시 신문 서사물에 미친 영향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경성일보(京城日報)』는 조선의 초대통감인 이토히로부미(伊藤博文)에 의해 『한성신보(漢城新報)』와 『대동신보(大東新報)』<sup>68)</sup>를 통합시켜 1906년 9월 1일에 창간된 신문이다. 처음에는 국한문판과 일본어판을 함께 간행했으나 1907년에 이르러 국한문판 간행을 중단하고 일본어판만을 간행하였다.<sup>69)</sup> 주지하듯, 1907년(7월)은 ‘광무신문지법’이 제정된 시기로서 이로 인해 많은 일간지들이 폐간의 수순을 밟게 되었고, 반대로 일본계 신문사에는 보상을 지불하여 수많은 일본어 신문들이 간행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비슷한 시기 『경성일보』를 포함한 일본인 간행 신문들이 일제히 국한문판 간행을 중단하게 된 것에도, 이 같은 요인들이 일조한 것으로 짐작된다.

『경성일보』는 영인본 출간<sup>70)</sup> 이후 일문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대부분 일본어 기사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sup>71)</sup>

66) 최원식, 「1910년대 친일문학의 근대성」, 『아시아문화』 14,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8.

67) 조용호, 「최영년의 〈詩金剛〉과 1920년대 漢詩界」, 『한국고전연구』 1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박영미, 「최영년 문학론 고찰 - 친일 문학론을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22, 근역한문학회, 2004.

68) 『대동신보』는 국한문판(4면 소형신문)과 일본어판(4면 대형신문)을 따로 두고 각각 일간으로 발행 되었는데, 1면에는 사전(史傳), 관령(官令), 위언(危言), 격어(格語) 등이, 2면에는 논설과 잡보, 3면에는 소설, 4면에는 광고가 실렸다. (이해창, 『한국신문사연구』, 성문각, 1983, 376쪽.)

69) 정병호, 「『경성일보』의 문예란(1906-20)과 식민지 조선의 일본어 문학」, 『일본연구』 29,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2018, 397쪽 참조.

70) 정진석, 「제2의 조선총독부 京城日報」, 『京城日報 제1권』, 서울:韓國統計書籍, 2003.

71) 嚴基權, 「京城日報における日本語文学」, 九州大学博士論文, 2015; 中村静代, 「植民地朝鮮のメディアに現れた怪銀杏譚の考察」, 『일본학보』 111, 한국일본학회, 2017, 75-94쪽; 中村静代, 「植民地朝鮮の日本怪談流通に関する研究」, 『일본언어문화』 30,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2015, 275-294쪽.



이는 그동안 자료들이 산일되어 있다가 2003년에 이르러 발행된 영인본(韓國敎會史文獻研究院)마저도 1915년 이후의 일문관 기사들을 위주로 영인<sup>72)</sup>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국내 다양한 독자층까지 아우르려 했던 국한문관의 기획 및 해당 서사자료들의 특징을 살펴보는 작업은 근대 서사양식의 출현과 발전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함께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예컨대, 국내 신문에 ‘잡보’라는 용어는 『조선신보』에서 처음 확인되며, 「소설」란 또한 『한성신보』에서 처음으로 확인되는 고정란이었던 만큼,<sup>73)</sup> 근대신문 속 서사양식의 출현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는 데 있어 국내 일문인 발행 신문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성일보』의 경우, 아직 국한문관 기사(1906.9.1. - 1907.4.20.)의 보존상태 및 서사자료 목록조차 정리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문자료에 대한 확인 및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4. 나오며

지금까지 정리한 ‘국한문 · 한문 단형서사의 연구동향과 과제’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인 자료들에 대한 분석에 앞서 사전 작업의 성격을 가진다. 이는 기존 단형서사 자료들에 대한 연구의 성과와 공백들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도출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실상 국한문 한문 단형서사에 대한 연구자들이 많은 부분 국문 단형서사의 선행연구들에 기초해 있으며, 매체에 대한 관련 논의들도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아, 본고의 정리가 연구사 전체를 오롯이 반영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먼저 2장에서 연구사의 경계로 설정한 2000년 이전의 시점은 단형서사에 대한 발굴 및 장르체계가 확립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해당 연구들을 토대로 2000년 이후에는 단형서사 양식의 전거를 확인하는 다양한 논의들이 진

72) 정병호, 앞의 논문, 2018, 397쪽 참조.

73) 김영민, 앞의 논문, 2006, 14-18쪽 참조.

행되었다. 그러나 국한문·한문 단형서사에 대한 범주설정의 모호함 및 서사양식의 다양성, 필자를 밝히지 않은 무서명 자료들에 대한 연구의 제한성, 자료판독의 난해성 등은 여전히 연구의 진척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이다.

따라서 3장에서는 근대초기(1883-1910) 신문에 실린 전체 국한문·한문 단형서사 자료들을 목록화하여 존재 양태를 확인하고, 당면과제들에 대해 성찰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매체별 단형서사 작품들의 목록화 작업과 총괄적 검토는, 특정시기 집중적으로 출현한 서사양식의 문학사적 의미를 고구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며, 앞서 특정 매체에 국한되어 진행된 문체연구에 대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방편과 동시에 그간 축적된 선행연구들의 성과를 아우를 수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시기별, 게재란별 단형서사의 현황과 특징을 통해 단형서사 분포가 논설란 위주에서 다양한 지면으로 확산된 면모들을 확인했으며, 시기별(1906/1907/1909년)로 등장했던 고사 및 근대소화, 극텍스트 등의 다양한 단형서사물에 대한 주목을 통해 전통 문학양식의 근대매체 속 이행 양상과 변모과정을 조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국내 일본인 발행 신문의 국한문·한문 단형 서사자료의 현황과 과제의 필요성에 대해 서술하였다. 근대시기 새로운 단형서사 양식의 출현을 논하기 위해서는 내재적 요인뿐만 아니라 외부적 요인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일본인 발행 신문 가운데, 한문 및 국한문으로 발표된 기사들은 독자층을 조선 식자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소개한 국내 신문들과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할 자료들이다.

본고를 시작으로 정리해 나갈 전체 자료에 대한 목록화 작업은 기존 단형서사 연구의 목표였던 근대시기 서사문학 양식의 흐름 및 계승의 과정을 조망하고, 국문 단형서사와 함께 병존했던 근대 서사문학의 존재 양태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작업이 단형서사 연구의 과제를 더욱 심화하는 바탕이 될 것이라는 바람으로 시작하였지만, 미처 다루지 못한 논의와 주제들이 산적하다. 추후 지속적 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 참고문헌

- 『慶南日報』(影印本), 영남대학교출판부, 1996.
- 『大韓每日申報』(影印本), 사단법인 한국신문연구소, 1976-1977.
- 『大韓民報』(影印本), 大韓民報社, 亞細亞文化社, 1985.
- 『萬歲報』(影印本), 亞細亞文化史, 1985.
- 『時事叢報』(影印本), 영남대 출판부, 1973.(제1호-제98호); 고려대 소장본(제99호:제100호).
- 『朝鮮新報』(影印本), 한국출판판매, 1984.
- 『漢城旬報·漢城周報』(影印本), 寬勳클럽 信永研究基金, 1983.
- 『漢城新報』(影印本), 연세대학술정보원, 소명출판, 2014.
- 『皇城新聞』(影印本), 경인문화사, 1994.
- 강영주, 「한국근대역사소설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6.
- 강은해, 「개화기 가사 연구」,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1979.
- 강현조, 「근대 초기 신문의 전래 서사 수용 및 변전 양상 연구」, 『현대문학의연구』 51,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 \_\_\_\_\_, 「근대 초기 매체의 문체 선택 및 분화 양상 연구」, 『서강인문논총』 42,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2015.
- \_\_\_\_\_, 「『대한일보』 소재 단형서사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39, 한국근대문학회, 2019.
- 구자균, 『韓末憂國警時歌』, 『문리논집』 4, 고려대학교, 1959.
- 권영민, 「『한성신보』와 최초의 신문 연재소설」, 『문학사상』, 1997.
- 권정원, 「조선신문 한문기사의 계몽적 역할과 의미」, 『석당논총』 83, 동아대 석당학술원, 2022.
- 권정원·김소영, 『국역 조선신보』, 보고서, 2022.
- 김교봉·설성경, 『근대전환기 시가 연구』, 국학자료원, 1996.
- 김상대, 『中世國語 口訣文의 國語學的 研究』, 한신문화사, 1985.
- 김소영, 「텍스트로서 조선신보의 한문기사 고찰」, 『일본사상』 37, 한국일본사상학회, 2019.
- 김영민, 「역사·전기소설 연구」, 『애산학보』 19, 애산학회, 1996.
- \_\_\_\_\_, 『한국근대소설사』, 숲, 1997.
- \_\_\_\_\_, 「근대계몽기 단형 서사문학자료연구」, 『현대소설연구』 17, 한국현대소설학회, 2002.
- \_\_\_\_\_, 『한국근대소설의 형성과정』, 소명, 2005.
- \_\_\_\_\_, 「〈역사·전기소설〉의 형성과 전개」, 『한국근대소설의 형성과정』, 소명, 2005.
- \_\_\_\_\_, 「구한말 일본인 발행 신문과 한국의 근대소설」, 『현대문학의연구』 30, 한국문학연구학회, 2006.
- \_\_\_\_\_, 『한국의 근대신문과 근대소설1 - 대한매일신보』, 소명, 2006.
- \_\_\_\_\_, 「만세보와 부속국문체 연구」, 『대동문화연구』 64,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2008.
- \_\_\_\_\_, 『한국의 근대신문과 근대소설2 - 한성신보』, 소명, 2008.
- \_\_\_\_\_, 『한국의 근대신문과 근대소설3 - 만세보』, 소명, 2014.
- \_\_\_\_\_, 「한성주보 소재 한글체 기사의 특질 연구」, 『대동문화연구』 107,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2019.
- 김윤규, 「개화기 단형 서사문학의 이해」, 국학자료원, 2000.
- 김재영, 「근대계몽기 소설 개념의 변화」, 『현대문학의연구』 22, 한국문학연구학회, 2004.

- \_\_\_\_\_, 「대한민보의 문체상황과 독자층에 대한 연구」, 『현대문학의연구』 40,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 김주현, 「개화기 토론회 양식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9.
- 김준형, 「근대전환기 패설의 변환과 지향」, 『구비문학연구』 34, 한국구비문학학회, 2012.
- \_\_\_\_\_, 「근대 초기 신문의 야담 활용 양상과 고전소설의 변모」, 『고소설연구』 37, 한국고소설학회, 2014.
- \_\_\_\_\_, 「근대전환기 야담을 보는 시각」, 『한국문학연구』 49, 동국대한국문학연구소, 2015.
- 김중하, 「개화기 토론회소설연구」, 『관악어문연구』 3,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78.
- 김찬기,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전』, 소명, 2004.
- \_\_\_\_\_, 「『한성신보』 소재 전제 서사물의 역사적 성격」, 『비평문학』 39, 한국비평문학학회, 2011.
- 김형철, 「갑오경장기의 문체」, 『새국어생활』 4권 4호, 1994.
- 김혜진, 「한성주보의 국어학적 연구」, 안동대석사논문, 2008.
- 김홍수, 「이른바 개화기의 표기체 유형과 양상」, 『국어문학』 39, 국어문학회, 2004.
- 문한별, 『한국근대소설양식론』, 태학사, 2010.
- 민현식, 「개화기 국어문체에 대한 종합적 연구(1)」, 『국어교육』 83,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4.
- \_\_\_\_\_, 「개화기 국어문체에 대한 종합적 연구(2)」, 『국어교육』 85,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4.
- 박수미, 「개화기 신문소설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5.
- 박영미, 「최영년 문학론 고찰 - 친일 문학론을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22, 근역한문학회, 2004.
- 박은정, 「『한성주보』의 국문체, 국한문체 기사 연구」, 『우리말글』 95, 우리말글학회, 2022.
- 박일용, 「開化期 敘事文學의 一研究」, 『관악어문연구』 5,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80.
- 박종덕, 「『대한매일신보』의 ‘사회등가사’와 ‘시사평론가사’ 비교고」, 『현대문학이론연구』 45, 현대문학이론학회, 2011.
- 반재유, 「『황성신문』의 ‘고사’연구」, 『국학연구론총』 17, 태민국학연구원, 2016.
- \_\_\_\_\_, 「황성신문의 시평연구」, 『한국학연구』 49, 인하대한국학연구소, 2018.
- \_\_\_\_\_, 「『시사총보』의 논설연구」, 『우리문학연구』 63, 우리문학회, 2019.
- \_\_\_\_\_, 「『황성신문』의 독후설 연구」, 『배달말』 67, 배달말학회, 2020.
- \_\_\_\_\_, 「근대신문 소재 명소고적과 기담」, 『연민학지』 39, 연민학회, 2023.
- 배수찬, 「『한성순보』의 글쓰기 인식에 대한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1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 \_\_\_\_\_, 『근대적 글쓰기의 형성 과정연구』, 소명, 2008.
- 배현자, 「『만세보』소재 단형 서사물의 특성 연구」, 『근대계몽기 단형 서사문학 연구』, 소명, 2005.
- 설성경, 『신소설연구』, 새문사, 2005.
- 송민호, 『한국개화기 소설의 사적연구』, 일지사, 1975.
- 송혁기, 「논설문의 특성과 작품 양상」, 『한국한문학의 이론 산문』, 보고사, 2007.
- 심재기, 「開化期의 敎科書 文體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07, 국어국문학회, 1992.
- 양세라, 「한국 근대 희곡 형성의 양식적 기반」, 『드라마연구』 26, 한국드라마학회, 2007.
- 양승민, 「『애국계몽기 우연의 존재 양식과 그 역사적 의의』, 『우리문학연구』 13, 우리문학회, 2000.
-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근대계몽기 단형서사문학 연구』, 소명, 2005.
- \_\_\_\_\_, 『한국 근대 서사양식의 발생 및 전개와 매체의 역할』, 소명, 2005.
- 유영은, 「개화기 단형서사체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9.
- 윤승준, 「근대계몽기 단형 서사문학과 우연」, 『동양학』 38,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05.

- 이강엽, 『토의문학의 전통과 우리소설』, 태학사, 1997.
- 이병철, 「근대신문의 논설텍스트와 서사관계」, 『한국사상과 문화』 68, 한국사상문화학회, 2013.
- 이유미, 「근대초기 신문소설의 여성인물 재현 양상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16, 한국근대문학회, 2007.
- \_\_\_\_\_, 「일본인 발행 미디어의 기획된 단편소설」, 『현대문학의연구』 41,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 이재선, 「개화기 서사문학의 두 유형」, 『국어국문학』 68 · 69, 국어국문학회, 1975.
- \_\_\_\_\_, 『한국단편소설연구』, 일조각, 1975.
- 이해창, 『한국신문사연구』, 성문각, 1983.
- 임상석, 『20세기 국한문체의 형성과정』, 지식산업사, 2008.
- 장성진, 「개화기사의 서술구조와 현실인식」,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1991.
- 정명기, 「일제 치하 재담집에 대한 재검토」, 『국어국문학』 149, 국어국문학회, 2008.
- 정병호, 「『경성일보』의 문예란(1906-20)과 식민지 조선의 일본어 문학」, 『일본연구』 29, 고려대 글로벌일본 연구원, 2018.
- 정보라미, 「〈마상루〉계 피난서사 자료의 상호 관계 재고」, 『우리문학연구』 45, 우리문학회, 2015.
- 정선태, 「개화기 신문 논설의 서사 수용 양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9.
- 정진석, 「제2의 조선총독부 京城日報」, 『京城日報』 제1권, 서울·韓國統計書籍, 2003.
- 조남현, 「사회등 가사의 풍자방법」, 『국어국문학』 72 · 73, 국어국문학회, 1976.
- 조상우, 「애국계몽기의 우연에 표출된 계몽의식」, 『동양학』 34,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03.
- 조용호, 「최영년의 〈詩金剛〉과 1920년대 漢詩界」, 『한국고전연구』 1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 채백, 「한성신보의 창간과 운용에 관한 연구」, 『신문연구소학보』 27, 서울대신문연구소, 1990.
- \_\_\_\_\_, 「조선신보에 관한 일연구」, 『한국언론학보』 26, 한국언론학회, 1991.
- 최원식, 「1910년대 친일문학의 근대성」, 『아시아문화』 14,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8.
- 최준, 「한성신보의 사명과 역할: 일본 외무성의 기관지 선구」, 『신문연구』, 1961.
- \_\_\_\_\_, 「일인계 국문판지의 유형고」, 『정경논집』 1, 중앙대 정경대학, 1969.
- 한기형, 「신소설 형성의 양식적 기반」, 『민족문학사연구』 14, 민족문학사연구소, 1999.
- \_\_\_\_\_, 『한국 근대소설사의 시각』, 소명, 1999.
- 한원영, 「한국 개화기 신문 한성신보에 연재된 소설고」, 『국어교육』 61, 한국어교육학회, 1987.
- \_\_\_\_\_, 『한국신문 한 세기 - 개화기편』, 푸른사상사, 2002.
- 허재영, 「근대계몽기의 어문정책(1)」, 『한민족문화연구』 14, 한민족문화학회, 2004.
- 홍성욱, 「고려 후기 논변류 산문 연구」, 『한국한문학의 이론 산문』, 보고사, 2007.
- 홍종선, 「현대 국어문체의 발달」, 『현대국어의 형성과 변천(3)』, 박이정, 2000.
- 嚴基權, 「京城日報における日本語文学」, 九州大学博士論文, 2015.
- 中村静代, 「植民地朝鮮の日本怪談流通に関する研究」, 『일본언어문화』 30,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2015.
- \_\_\_\_\_, 「植民地朝鮮のメディアに現れた怪銀杏譚の考察」, 『일본학보』 111, 한국일본학회, 2017.
- 布袋敏博, 「二つの朝鮮語譯, 『經國美談』について」, 『近代朝鮮文學における日本との関連様相』, 綠蔭書房, 1998.
- Altman, Albert A, 「Korea's First Newspaper: The Japanese Chosen shinpo」,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43, No. 4, 1984.

## The Present Status and Tasks of Early Modern Newspaper Short Narrative Studies

Focusing on Korean-Chinese and Classical Chinese Style short narratives

Ban, Jae-yu\*

During the modernization period, the presence of short narratives in early modern media serves as evidence challenging the view that the early modern period constitutes a gap or rupture in the history of novels. It also provides significant grounds for recognizing the existence of early modern narrative literature, which actively reflected the socio-historical environment and developed even prior to the advent of Sinsoseol(新小說) and modern novel(近代小說).

Whereas previous studies on Korean Style short narratives have primarily focused on their influence on the novel forms that emerged during the 1910s, research on Korean-Chinese and Classical Chinese Style short narratives is indispensable for examining the intellectual foundations and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narrative literature during this period. Attention to these Korean-Chinese and Classical Chinese Style short narratives materials is meaningful as it facilitates a multifaceted examination of early modern narrative literature, including the media, figures, and traditional narrative styles that influenced new writing practices in the early modern era.

This study's discussion of research trends and the identification of tasks related to Korean-Chinese and Classical Chinese Style short narratives

---

\* Institute for the Study of Korean Modernity Yonsei University / Academic Research Professor

constitutes preparatory work prior to conducting a detailed analysis of these materials. The aim is to assess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 on short narratives and to propose future research directions.

The cataloging of all materials by medium, period, and publication section, as introduc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essential foundational data. This process will facilitate an examination of the flow and succession of narrative literary forms during the early modern period, which has been a central objective of previous research on short narratives. Additionally, it will serve as a crucial resource for confirming the modes of existence of modern narrative literature that coexisted with Korean Style short narratives.

**Key words** : short narratives, early modern newspaper, narrative literature, style, korean-chinese style, research trends